자위대와 타국과의 육군 군사장비 비교

일본어일본학과 21702043 주성일

자위대는 이름처럼 국토방어 이외의 임무는 배제한 형태의 장비가 많다. 특히 전차의 경우 철도수송을 위해 과도한 경량화와 소형화로 50t 미만의 중량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전차의 중량은 대부분 방호력과 직관된다. 장갑에 많은 재료를 투자할수록 장갑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만큼 포탄에 대한 방호범위가 증가하는데 10식 전차의 최대중량은 48t. 바로 옆나라인 대한민국의 K2흑표가 56t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8t의 무게가 장갑에서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64t, 영국의 챌린저2는 62.5t,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54.5~57.4t으로, 적 포탄 방호를 위해 장갑을 추가하면 55t이상의 중량이 나오는 것이 최소한계선으로 볼 수 있는데 10식 전차는 50t미만이므로 방호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가벼워서 얻은 장점도 있다. 빠른 기동이 가능하고 운송에 있어 부담이 적으며 크기가 작으므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량의 전차를 적재할 수 있다는 것. 이론상 그렇지만 일본의 모든 전차를 합쳐야 한국의 K1전차 보유량을 겨우 넘기 때문에 전차의 크기와 적재량은 비례하지 않는 것같다.

자위대에서는 10식전차를 홍보할 때 안정된 주포와 강한 엔진을 중심으로 기동사격을 중시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포신 끝에 와인잔을 올리고 헐다운(차체 기울이기)을 선보이거나 퍼레이드에서 급선회 중 사격을 하는 수가 꽤 된다는 것이 증거라면 증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데, 포신의 스테빌라이징은 디지털화된 3세대 이상의 전차에겐 기본 성능이고 50t미만에 1500마력의 엔진의 조합은 분명 기동에 있어 장점이긴 하지만 서스펜션이 버티질 못해 차체가 심하게 기운다. 포사격시 차체의 흔들림은 모든 전차의 공통점이긴 하지만 정면을 주시한 상태에서 발포했을 때도 크게 흔들려서 유효거리에 가까운 표적에 사격을 할 때 명중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전차를 이루는 부품의 수명이 급감하는 문제 또한 따른다.

관련사항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2015 후지 종합화력시범 도중 10식전차의 궤도가 이탈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흙 등 이물질이 많이 끼인 상황에서 급선회를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저게 쉽게 빠질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부품의 수명에 의문을 표하는 입장도 많다.

전차는 개발 이후에도 꾸준한 개량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잦다. 크기 자체도 커서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상전의 얼굴마담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개량하는 것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가 있는데, 레오파르트는 2A7까지 업그레이드 되고 에이브람스는 파생형까지 합하면 끝도 없지만 지금은 M1A2 SEP TUSK가 최상위 버전. 개량이 거듭될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붙는 수식어가 많아지는데, 에이브람스는 M1전차의 2번째 개량 버전에다가 전자장비를 강화(SEP)하고 전차시가전투킷(Tank Urban Survival Kit)를 장착한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한국만 봐도 K1전차가 K1A1, K1A2, K1E1등 88년도에 제작된 전차를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식 전차는 그게 불가능하다.

전차가 지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는 이유는 장비가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고 그 무게를 버틸 수 있기 때문인데 10식전차는 그게 자체가 작은데다 전차 자체가 차지하는 무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비 하나 업그레이드 하려면 엄청난 연구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설령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해도 전차가 증가된 장비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맞는 예시가 레오파르트2. 레오파르트2는 는 과도한 계량으로 전차의 무게가 계속 늘어 포탑의 장갑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 전차가 수용 가능한 한계선을 넘으면서까지 무리한 개량을 진행했기 때문인데, 안 그래도 작고 가벼운 10식 전차의 한계는 개발 당시 장비가 한계일 것이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사실상 자위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자위대의 목적인 국토방어에만 집중한다며 문제 없지만 전체적인 성능 차이와 향후 개량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본다면 문제가 많은 전차다.

64식 소총은 의외로 7.62mm탄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AR-10에서 파생하기도 했고 미국의 M14를 대체하기 위함이다. 성능 자체는 M14보다 우위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설계에 문제가 있어 고정부품이 파손되는 일이 잦다. 그래서 테이프로 보강하라는 교본이 존재하는데, 야전에서 응급상황에 테이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나니까 테이핑을 하라는 것. 명백한 설계 오류다. 그리고 특이하게 양각대가 기본 옵션이라서 탈부착은 안 되고 사용을 할지 말지만 결정 가능하다. 덕분에 총기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 단점으로 작용한다.

89식 소총은 AR-18을 베이스로 제작한 현재 일본 자위대의 제식 소총. 단가가 많이 낮은 소총에서 파생했는데 한국의 K-2소총을 5정이나 살 수 있고 K-3기관총은 세 정이나 살 수 있다.

단가가 심각하게 높은 이유는 모든 제작과정이 절삭가공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공업으로 일어난 일본인데 단가를 낮추지 못한 건 명백한 정부의 실수다. 단가는 둘째 치더라도 군수품인데 제작시간이 길면 유사시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일본의 특수부대인 S.A.T에서도 89식 소총을 사용한다.